



봄꽃에 빠진 여성

2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2010 광주 봄꽃박람회를 찾은 여성 관광객들이 전시된 형형색색의 꽃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다. 봄꽃박람회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배심원 토론 패널 누구냐”

민주 광주시장 경선 세부 룰 혼선 여전

“특정이념 편향 인물 절대 배제해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천의 최대 변수인 시민공천배심원제 대비책 마련에 각 후보 진영이 총력을 펼치고 있으나 세부 시행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후보 캠프마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뮤티던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 양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광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나머지 50%가 반영되는 전 당원 여론 조사에서 선전하더라도 공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

후보들은 일단 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주시민 배심원 200명, 외지 전문배심원 200명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이 토론회에서 받은 인상을 토대로 점수를 매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분야별 이상 질문과 답변 준비는 기본이고,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부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각 후보 진영은 사회자 1명과 패널 3명이 누가 될 것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도 중립적인 인사들로 사회자와 패널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과정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선과 관련해 고심을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보들은 배심원단의 성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외지 이력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있다. 민주당은 특정한 정당의 경선에 합류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배심원경선 비용도 각 후보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인 전망이 나오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문 배심원 1명에 10만원 정도의 경비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당원 전수 여론조사 비용까지 감안하면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후보당 부담비용이 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이 시민공천배심원제 세부 시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 측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중앙당 개입설 등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 주 내에 사회자, 패널, 참여단체, 후보 정보 제공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보다 강화된 보안 대책 등 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배심원 추천 예상 단체

와 민주당의 정치협약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상당 수의 중도 성향 단체들은 특정 정당의 경선에 합류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배심원경선 비용도 각 후보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인 전망이 나오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문 배심원 1명에 10만원 정도의 경비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당원 전수 여론조사 비용까지 감안하면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후보당 부담비용이 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이 시민공천배심원제 세부 시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 측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중앙당 개입설 등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 주 내에 사회자, 패널, 참여단체, 후보 정보 제공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보다 강화된 보안 대책 등 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당원 명부’ 논란 다시 가열

박준영 “누락 호소 당원 많다” 주승용 “자기가 결재해 놓고...”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당원명부 조작 의혹’ 논란이 잠시 주춤한 듯 싶더니 25일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3선 출마’ 선언으로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경선 일(4월17일)을 20여 일 앞둔 상황에서 후보 간 ‘당원명부 의혹’ 공방과 신경전은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여 경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전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3선 출마’를 선언한 박준영 전남지사는 최근 논란이 된 당원명부와 관련 “도당위원장을 1년 6개월간 수행했던 분이 후보로 나선 상황에서, 일부 당원들이 명부에서 누락이 됐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도당위원장이었던 전남도지사 후보인 주승용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박 지사는 이어 “당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 진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당위원장 재임 시절, 공당의 재산인 당원명부를 유출한 적이 없으며,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면서 “박 지사가 공정선거를 하자면서 출마 선언 첫날부터 매우 모호한 말로 경쟁후보를 헐뜯는 발언을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특히 “지난해 박지사로 사무위에 참석해 22개 시·군 지역 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의원들을 확정·의결하는데 참석했었다”면서 “결국, 당사자 스스로 확인한 내용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박 지사는 최근 사실과약도 못한 채 당원명부 조작의혹을 제기했다가 역으로 자신이 유출의혹 당사자로 지목돼 당원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출마 선언 기자회견장에서 마치 경쟁후보가 명부를 조작이나 한 것처럼 일버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모든 판결문 공개... 고법 상고부 신설

1,2심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문이 전면 공개되고,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가 설치돼 불필요한 상고를 사전에 걸러낸다.

대법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법관 연임심사 강화와 전자 민사 소송 조기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1, 2심과 대법원

의 모든 판결문을 일반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광주를 비롯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를 심사하는 총 8

개의 상고심사부를 설치키로 했다.

재판부에는 경력 15년 이상인 현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 임용한 총 25명의 상고심사법관이 배치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느슨하게 이뤄졌다는 평을 받은 법관의 연임심사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대폭 강화키로 했으며, 법관 윤리장전도 마련해 엄정하게 적용키로 했다. <연합뉴스>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광주대교구 출신 사제론 처음

김희중(히지도) 대주교(63·사진)가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직을 승계했다.

주한 교황대사관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최창무 대주교의 광주대교구장 직 사임 청원을 받아들여 교황령에 따라 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가 교구장 직을 자동 승계하게 됐다고 25일 발표했다.

광주대교구 출신 사제가 교구장에 오른 것은 교구설립 73년 만에 김희



중 대주교가 처음이다. 김희중 대주교는 목포 출신으로 1975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1976년 로마에 유학해

1986년 교황청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교회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광주 가톨릭대 교수, 2002년 광주대교구 금호동성당 주임신부를 지냈으며 2009년 광주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로 승격됐다.

현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리주교위원회,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07년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위원, 2008년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2000년 윤공희 대주교를 이어 광주대교구장직을 맡아온 최창무 대주교(74)는 최근까지 주교회의의 성직주교위원회,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위원을 맡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Mind & Body

정신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

1. 정신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

2. 정신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

3. 정신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

4. 정신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

5. 정신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

6. 정신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

7. 정신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

8. 정신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

9. 정신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

10. 정신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

KLS (주)한국스포츠산업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 (삼성동) | 전화: 02-225-1111 | 팩스: 02-225-1112